

#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2025 KUBA 야구&티볼 페스티벌 IN 양구		
동아리 분과	체육분과	동아리명	경희 라이온스
활동시간	2025.02.14.~2025.02.17	비고	
활동목적	<p>동아리의 목적: 대학인으로서의 야구 실력 향상과 이를 통한 체력 증진, 건강을 유지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인간적 유대관계를 갖음과 동시에 동아리에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힘쓴다.</p> <p>세부목적: 야구경기를 통한 동아리 유대감 형성 및 체력, 건강증진</p>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양구 하리아구장</p> <p>활동내용 : 경희 라이온스는 2025년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 동안 강원도 양구에서 열리는 2025 KUBA 야구&amp;티볼 페스티벌에 참가했습니다. 연례로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미리 야구장 앞 숙소를 잡고, 경기, 연습, 식사, 바비큐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첫날은 고려대 KUBIZ와의 1차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11시 경기인 만큼 선수들은 10시까지 경기장 앞에 집합해 몸을 풀고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팀원들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5 : 7이라는 점수로 지고 말았습니다. 토너먼트에 올라갈 경우의 수는 많았으나, 확정적이었던 건 예선 2차전을 압승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경기가 17일인 만큼, 선수들은 더욱 열심히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경기가 없는 15일, 16일, 선수들은 밤낮으로 야구장 옆 실내연습장에서 운동했습니다. 화이팅을 다짐하는 바비큐도 15일에 진행했습니다. 경기가 없는 이 기간 동안, 티볼 대회에도 참가했습니다. 여성 선수도 참가하며 웃음이 가득하고 재미있지만 수준 높은 경기들을 펼쳤고, 공동 3등이라는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p> <p>17일 대망의 예선 2차전, 12 : 2 라는 압도적인 점수차로 가톨릭관동대에 승리하였지만 경우의 수에 들지 못해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마지막 밤을 다시한번</p>		

바비큐를 하며 마무리하고, 다음 날 각자의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했습니다.

소감 : 이번 2025 KUBA 야구&티볼 페스티벌은 아쉬움과 보람이 함께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연례 행사로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모두 한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대가 컸습니다. 첫 경기에서 아쉽게 패했지만, 그 경험이 우리 팀에게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쉬지 않고 훈련하며 서로를 격려했고, 바비큐와 같이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티볼 대회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힘을 합치고, 즐겁게 경기에 임하며 공동 3등이라는 값진 성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마지막 2차전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경기를 통해 우리 팀의 잠재력과 상호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UBA



2025 야구&티볼 페스티벌 IN 양구  
티볼부문 DIVISION 2 공동3위  
경희대학교(국제) 라이온스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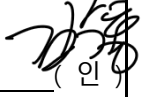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김수홍

  
(인)

#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AUBL 조별예선 1차전 vs 단국대 하운드		
동아리 분과	체육분과	동아리명	경희 라이온스
활동시간	2025.03.22	비고	
활동목적	<p>동아리의 목적: 대학인으로서의 야구 실력 향상과 이를 통한 체력 증진, 건강을 유지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인간적 유대관계를 갖음과 동시에 동아리에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힘쓴다.</p> <p>세부목적: 야구경기를 통한 동아리 유대감 형성 및 체력, 건강증진</p>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남사 워너비베이스볼파크</p> <p>2025년 3월 22일 2025년 첫 공식경기이자 수도권 대학동아리 야구리그 AUBL의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월요일, 목요일에 진행되는 정기연습을 거치고 이뤄지는 라이온스 선수들의 첫 경기이므로 많은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경기에 참가했습니다.</p> <p>경기는 24학번 김민준 선수의 3이닝 0실점 6탈삼진과 이어지는 투수들의 호투, 막강한 타선과 함께 13 : 3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3회말까지 3 : 0으로 타이틀한 경기가 이어졌지만, 4회 8점, 5회 2점을 더 내며 10점차 대승을 이뤄냈습니다.</p> <p>아직 쌀쌀한 초봄의 날씨에 선수들은 더 확실하게 몸을 풀어 부상을 예방했고, 큰 소리로 화이팅을 내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학기 초라 아직은 야구가 익숙한 재학생 위주의 라인업으로 경기를 진행했지만, 벤치에서 신입생 선수들과 매니저분들의 응원의 목소리가 경기 분위기가 처지지 않고 경기장의 선수들이 집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야구는 분위기 싸움이라는 말이 있듯이, 동아리 내 활기찬 분위기와 승리를 위한 하나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함을 다시한번 느꼈고, 예선 8경기 중 첫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뿌듯함을 가지고 안전하게 귀가했습니다.</p>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김수홍



#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AUBL 조별예선 2차전 vs 서강대 알바트로스		
동아리 분과	체육분과	동아리명	경희 라이온스
활동시간	2025.04.13	비고	
활동목적	<p>동아리의 목적: 대학인으로서의 야구 실력 향상과 이를 통한 체력 증진, 건강을 유지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인간적 유대관계를 갖음과 동시에 동아리에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힘쓴다.</p> <p>세부목적: 야구경기를 통한 동아리 유대감 형성 및 체력, 건강증진</p>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서울대공원야구장</p> <p>2025년 4월 13일 경희 라이온스는 AUBL리그 하위시드 팀 중 다크호스라고 불리는 서강대 알바트로스와 AUBL 2차전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E조 1위를 원하는 라이온스가 꼭 이겨야만 하는 팀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팀 투수는 좌완 파이어볼러로 이전 경기 노히트를 달성한 투수라 더욱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p> <p>경기는 12 : 0으로 경희 라이온스가 또 한번 대승을 일궈냈습니다. 이전 경기 노히트를 달성한 투수를 보유한 서강대 알바트로스를 상대로 11안타, 5사사구를 뺏아내며 총 12점을 냈고, 라이온스의 선발투수 김민준 선수가 5이닝 무실점으로 완벽한 피칭을 보여주며 5회 12점차 콜드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p> <p>이번 경기로 라이온스는 조 1위를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선 2경기를 압도적인 점수차로 승리한 선수들의 자신감은 더할 나위 없었고, 연습에 더욱 몰두해 남은 경기들을 똑같이 확실한 점수차로 이겨내자는 경기후 팀미팅에서의 감독(응용수학과 21학번 박지원)의 말이 있었습니다. 남은 6경기 중엔 저번 시즌 준우승팀인 국민대 윈드밀스와의 2경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승리에 너무 자만하지 말고 연습량을 더 늘리자는 다짐과 함께 경기를 마무리했고 안전하게 귀가했습니다.</p>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김수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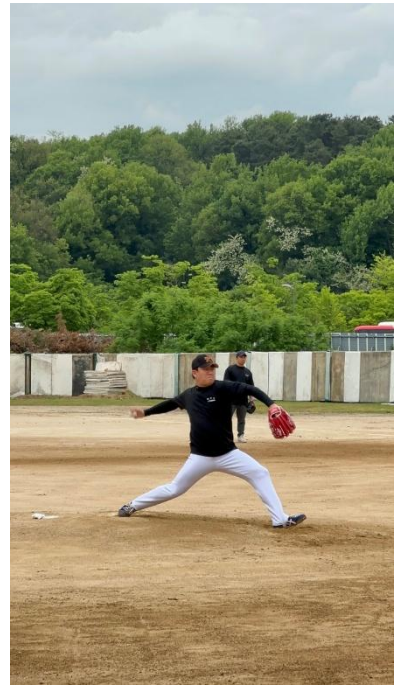


#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2025 경희 라이온스 OBYB 교류전		
동아리 분과	체육분과	동아리명	경희 라이온스
활동시간	2025.05.17	비고	
활동목적	<p>동아리의 목적: 대학인으로서의 야구 실력 향상과 이를 통한 체력 증진, 건강을 유지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인간적 유대관계를 갖음과 동시에 동아리에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힘쓴다.</p> <p>세부목적: 야구경기를 통한 동아리 유대감 형성 및 체력, 건강증진</p>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경희대 국제캠퍼스 제2야구장</p> <p>2025년 5월 17일 경희 라이온스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OB-YB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OB-YB 행사란 동아리가 창설된 1982년부터 동아리에서 활약하셨던 선배님들과의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입니다. 항상 다양한 분야에서 동아리에 큰 힘을 주시는 선배님들이시기에 YB 동아리 부원이 선배님들께 조금이나마 보답을 드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p> <p>신입생, 재학생 할 것 없이 임원진을 도와 선배님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야구공이 무작위로 튀지 않게 경기장 땅을 갈고, 무더위에서 교류전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원한 물과 음료수, 다과, 컵과일을 연합회에서 빌려주신 캐노피와 듀라테이블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다함께 준비했기 때문에 순탄히 경기가 시작되었고, 연세가 있으신 OB분들이 온열질환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경기를 즐기셨고, 다행히 부상자 없이 9 : 7 OB팀의 승리로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p> <p>본 행사에서 졸업생 선배님께서 후배들에게 야구에 대한, 인생에 관한 고민에 대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셨고, 후배들을 향한 많은 애정을 아낌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더불어 라이온스가 더 좋은 환경에서 야구를 할 수 있도록 경기장 대여, 오래된 장비 정비를 위한 찬조금을 지원해주셨고, 이후 있었던 회식</p>		

또한 선배님들이 부담해주시는 등, 동아리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OB-YB 행사를 통해 선배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큰 지원을 직접 느끼며, 경희 라이온스의 든든한 전통과 결속력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선후배가 함께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앞으로의 동아리 활동에 큰 힘과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김수홍



#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2025 KUSF 클럽챔피언십 조별예선		
동아리 분과	체육분과	동아리명	경희 라이온스
활동시간	2025.07.15	비고	
활동목적	<p>동아리의 목적: 대학인으로서의 야구 실력 향상과 이를 통한 체력 증진, 건강을 유지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인간적 유대관계를 갖음과 동시에 동아리에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힘쓴다.</p> <p>세부목적: 야구경기를 통한 동아리 유대감 형성 및 체력, 건강증진</p>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농협대학교 야구장</p> <p>경희 라이온스는 올해도 KUSF에서 주관하는 KUSF 클럽챔피언십 2025에 참여했습니다. KUSF 클럽챔피언십은 선수출신 부원이 출전할 수 없는 순수 비선수출신 부원들만을 위한 대회입니다. 또한 모든 경기 중계를 해주며 72개 팀이 참가하는 규모가 큰 대회입니다. 비선수출신 부원들에게는 큰 기회를 주는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희 라이온스는 차의과대 CLOSERS와 동국대 LAE와 함께 S조에 편성되었습니다. 첫 경기는 차의과대 CLOSERS와의 경기였습니다. 9시 경기였기에 부원들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8시에 농협대학교 야구장에 도착해 비선수출신들이라는 검사를 받고 몸을 풀었습니다. 정말 습하고 비도 조금씩 내리는 날씨였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평소보다 2배는 더 집중해서 뛰었습니다. 선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7:9로 차의과대 CLOSERS에게 첫 경기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 2위 8팀까지 32강에 올라갈 수 있으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13:00에 열릴 동국대 LAE와의 경기를 기다리던 중 정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2차전은 진행되지 못하고 일주일 뒤로 미뤄졌습니다.</p> <p>라이온스는 제천에서 열리는 다른 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천에서 06:30에 고양시에 위치한 농협대학교로 출발했습니다. 모든 부원들이 이른 시간 이동으로 피곤했지만 승리를 위해 열정을 불태우며</p>		

올라왔습니다. 경기장에 도착 후 다시 한번 선수 검인을 받고 몸을 풀고 경기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부원들이 고군분투 하였지만 당일 새벽부터 이동의 여파는 생각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3:6으로 패배하며 조별예선에서 0승 2패로 32강 진출 실패라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비록 32강 진출에는 실패하였으나 모든 부원들이 자신의 실력을 되돌아보고 다음 대회를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조별예선 탈락이라는 쓴 결과를 얻었지만 한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정이라는 환경이 경희 라이온스를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모든 부원들과 운영진들은 이를 탓하기보단 주어진 한경기 한경기에 집중하며 의지를 불태우고 단합을 이뤄냈습니다. 객관적인 선수들의 실력을 파악할 수 있었던 대회이고 다음에 열릴 대회를 위해 노력하며 라이온스는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김수홍



#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2025 제천 KUBA 전국 동아리 야구대회		
동아리 분과	체육분과	동아리명	경희 라이온스
활동시간	2025.07.22~2025.07.23	비고	
활동목적	<p>동아리의 목적: 대학인으로서의 야구 실력 향상과 이를 통한 체력 증진, 건강을 유지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인간적 유대관계를 갖음과 동시에 동아리에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힘쓴다.</p> <p>세부목적: 야구경기를 통한 동아리 유대감 형성 및 체력, 건강증진</p>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충북 제천 송학야구장</p> <p>경희 라이온스는 2025년 7월 22일부터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열린 제3회 제천시 의림지배 전국대학동아리야구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올해로 3번째 참가하는 대회만큼 큰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비록 시내에 위치한 숙소에서 지냈기때문에 바비큐를 하며 부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었지만 근처 고깃집에 가서 부원들과 함께 단합을 갖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숙소에서는 비교적 나이가 적은 24, 25학번 부원들과 고학번 부원들이 큰 어색함 없이 같이 야구를 시청하고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등 가족같은 분위기를 풍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p> <p>경희 라이온스의 첫 경기는 송학야구장에서 열린 경기대학교 KGB와의 16강 경기였습니다. 모두가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경기를 준비했으나 대회 운영진과 동아리 운영진의 커뮤니케이션 실수로 안타깝게 물수패를 당했습니다. 선수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꼼꼼하게 선수등록 과정을 체크해야겠다는 운영진들의 소통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회 운영진과의 소통을 통해 다음 대회부터는 확실하게 공지를 올리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매우 아쉬운 결과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8월에 열릴 양구 대회에서는 더욱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숙소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한 후 다음날 열리는 다른 대회를 위해 06:00에 기상하여 빠르게 준비를 한 후</p>		

고양시로 올라왔습니다.

이번 제천 대회는 너무나 아쉬운 대회였습니다. 제대로 승부를 해보기도 전에 몰수패라는 결과를 받아서 더욱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는 이와 관련된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부원들의 의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욕과 가족같은 분위기, 평소 쌓아둔 실력을 바탕으로 8월에 열릴 다른 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꼭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김수홍

김수홍  
2024. 11. 10